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송광순, 간호본부장 최연숙)은 혈액종양내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4월 1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간호인력을 충원했다. 휴게실, 상담실, 서브 스테이션을 설치해 병동 환경을 개선했다. 환자의 낙상 방지를 위해 모든 병상을 전동 침대로 교체하고, 환자 감시장치와 낙상감지기 등을 추가로 구비했다. 송광순 병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환자의 가족들이 믿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MH연세병원 신규간호사 소통과 화합 첫돌잔치

MH연세병원(이사장 박재균, 병원장 김정환) 간호부(간호차장 손호선)는 입사 1년차 신규간호사를 축하하기 위한 첫돌잔치를 4월 11일 열었다. 선배간호사들은 존중과 배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간호사들의 안정적인 병원생활을 도와줬다. 지난 1년간 병원생활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선배간호사가 축하메시지와 선물을 전달했다. 손호선 간호차장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MH연세병원을



이끌 최고의 간호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MH연세병원은 매년 소통과 화합을 취지로 신규간호사 첫돌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최수정 기자 sjchoi@

해운대백병원 신규간호사 부모 초청행사

인제대 해운대백병원(병원장 문영수, 간호부장 이원철)은 '2018 신규간호사 부모 초청행사'를 4월 12일 개최했다. 올해 입사한 신규간호사들이 병원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신규간호사 부모 20여명을 초청했다. 자녀의 근무지를 돌아보고, 담당 부서장 및 선배들과 만나 소통했다. 부모들은 평소 갖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으로 해운대백병원 가족이라는 자긍심을 북돋웠다. 이원철 간호부장은 "신규간호사들이 증도에 포기하지 않고 잘 적응하도록 교육기간 동안 선배들이 잘 챙기고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설명회 개최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설명회'를 서울·경기·인천·광주·부산·대구 등 6개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시작했으며 27일 마무리된다. 공단은 현지 평가가 절차, 재정적 우대 확대 및 계약평가가 가치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항목의 개선사항에 대해 개선 배경과 항목을 상세하게 설명해 평가대상기관의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 500곳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수준 및 재활노력 등을 중심으로 7개 영역에서 평가하고 있다. 우수의료기관은 1년간 종별가산율이 5~10% 추가 인정된다. 부진한 의료기관은 개선명령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 실시대상으로 선정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최수정 기자 sjchoi@

경상대병원 UCC 상금 환자에게 전달

경상대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정옥분)는 개원 31주년 기념행사에서 UCC 부문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상금을 우수상 수상자였던 '우리 병원이 최고야'의 주인공 환자였던 김익수 씨에게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22번의 대수술을 했으며, 3번의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다리 절단 위기까지 갔다. 현재 다섯 아이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시 생명을 찾아준 경상대병원과 의료진에게 감사하



는 마음으로 UCC에 출연했다. 간호부 대외협력팀장으로서 UCC 팀을 운영한 신지선 수간호사는 "환자와 의료진의 만남을 소중히 인연으로 이어나가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순천향대 서울병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캠페인

순천향대 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은 '직장 내 괴롭힘 및 3대 폭력 근절(폭언, 폭행, 성희롱 OUT!)' 캠페인을 병원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4월 13일 진행했다. 서유성 병원장과 강정구 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은 '상호존중, 인격도박금지, 발달금지, 태움 없는 병원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주혜진 기자 hjoo@



페인을 알렸다. 노사 관계자들은 직원들에게 "상호존중, 인격도박금지, 발달금지, 태움 없는 병원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원광대병원, 몽골 의료진 연수프로그램 실시

원광대병원(병원장 최두영)은 '2018 한-몽 서울프로젝트' 수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몽골 의료진에게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몽골국립제1병원, 몽골국립암센터의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대장항문외과 의사와 간호사 4명이 5월 8일~6월 29일 약 8주간에 걸쳐 연수를 받게 된다. 원광대병원은 2012년부터 한-몽 서울프로젝트 수행 의료기관

으로 참여해왔다. '한-몽 서울프로젝트'는 한국 보건복지부와 몽골 보건부 간 2011년 체결한 보건교섭협정의 후속 조치로 추진돼왔다. 연수생 네트워크를 통한 외국인 환자유치와 한국의료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및 글로벌 의료한류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원광대병원은 올해 연수자들을 포함해 총 47명의 몽골 의료진에게 연수를 제공하게 된다. 최수정 기자 sjchoi@

Advertisement for 'Preparation for the Best' (보건교사 최단기 합격 솔루션) featuring a woman and text about exam preparation and success rates.

Advertisement for 'Connect' (커넥츠) featuring a woman and text about exam preparation and success rates.

Advertisement for 'Preparation for the Best' (보건교사 합격의 매뉴얼) featuring a woman and text about exam preparation and success rates.

Advertisement for 'Catholic University' (가톨릭대학교) featuring a woman and text about admission and exam prepar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2018 Academic Year Second Semester Hanyang University Distance Education Information University New Student Recruitment' (2018학년도 후기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신입생 모집) featuring a woman and detailed text about the program.